위령재로 되살린 호국…순국영령 추모

통도사, 6월 14일 제4회 호국영령위령재 봉행

현덕 스님 "평화, 희생으로 이뤄"
군종교구 후원금 1000만원 전달
위령재 정례화로 호국불교 실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는 6월 14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4회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6월 14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4회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번 위령재는 통도사가 2021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현충시설 지정을 받은 이후, 매년 정례화해 이어 오고 있는 추모의례다.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 경내에 설치된 육군병원 분원은 전상장병들의 치료와 후송을 맡았던 실증적 공간으로, 통도사는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법요식은 명종 5타, 삼귀의례, 애국가 제창, 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봉행사, 추모사, 후원금 증정, 추모노래,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통도사는 군종특별교구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주지 현덕 스님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법사인 정행 스님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이는 군 장병들의 심신 치유와 종교활동 지원을 위한 실질적 보시행으로, 자비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봉행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수많은 생명의 희생 위에 세워졌으며,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도사는 단지 수행의 공간을 넘어, 전쟁의 고통을 함께한 호국의 장소"라며 "그 고통을 기억하는 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며, 아픔을 망각하지 않으려는 이 위령재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올리는 참회와 감사의 예경"이라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이 지역에 새겨진 충절과 희생의 기록은 오늘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등불이었다"며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사업과 추모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사에는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 곽종포 양산시의회 의장, 강석두 울산보훈지청장이 참여해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했으며,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의 추모 노래가 깊은 울림을 전했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분원으로 사용됐다. 2019년 미륵불 복장 조사 중 발견된 '용화전 미륵존불 갱 조성연기' 문서를 통해 통도사 정양원이 군 병원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1951년 '동아일보' 보도에서는 통도사에 머무는 장병 1600여 명을 위해 양산보건회가 위문 공연을 했다는 기사가 확인됐다. 또 병사들의 사망 기사와 주민 증언, 군 사료가 종합되면서 국방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21년 11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 현충시설 지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통도사는 2022년부터 위령재를 봉행하며, 단순한 기념이 아닌 불교적 추모와 평화실천의 장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통도사, 윤달 맞이 생전예수재 봉행한다

가사불사도 함께…7월 2일 입재식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봉행한다. 두 불사는 오는 7월 2일 설법전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되며, 가사불사는 8월 12일, 생전예수재는 8월 19일 회향한다.

'가사불사'는 스님들에게 공양할 가사를 제작해 올리는 불사다. 회향일인 8월 12일에는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가사를 이운하고 점안 공양하는 장엄한 이운식이 거행된다.

통도사는 가사불사 기간 동안 영산전에 전통 가사를 전시하고, 재가 불자들이 참여하는 가사 제작 공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진행되는 '생전예수재'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스스로를 위해 천도재를 지내는 전통 의식으로, 생사의 무상함을 자각하고 삶의 방향을 돌아보는 참회의 수행이다. 이번 예수재는 49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불공과 법문, 천도재로 이어진다.

법문은 △입재 7월 2일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3재 7월 22일 법상 대종사(조계종 법계위원장) △5재 8월 5일 덕문 스님(통도사 율주)으로 이어지며 초재, 2재, 4재, 6재, 막재는 법문이 없이 진행된다.

통도사는 "생전예수재는 모든 존재가 맞이할 죽음을 수행의 거울로 삼고, 지금 이 삶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해 주는 법회"이며 "가사불사는 수행자에게 법의를 공양하는 불사로, 불자들의 원력과 정성이 전통으로 이어지는 귀한 인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055-381-12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회복지법인 혜원, '혜원백일장' 개최

6월 14일 혜원정사서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6월 14일 혜원정사에서 '제28회 혜원백일장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백일장의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운문부문 송은채 학생(경남여고)과 산문부문 박유이 학생(부산정보고)이 영광을 안았다. 그 외 부산시교육감상에 현로아, 문시우 학생 등 총 26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대표이사 원허 스님은 "궂은 날씨에도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존경, 기대, 미움 등 복합적인 감정이 진솔하게 표현된 작품이 많아 매우 뜻깊었다. 백일장을 통해 학생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죄를 공덕으로 바꾸는 수행합시다"

범어사, 13일 생전예수재 입재
9월까지 선지식 초청법회 진행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음력 윤달을 맞아 6월 13일 경내 설법전에서 '2025 백중지장기도 및 생전예수재 선지식 초청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충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이 초청 법사로 나서 법문을 설했다.

입재에 앞서 정오 스님은 범어사가 30년 가까이 백중 기간 동안 선지식 초청 법회를 이어오며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기도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수행"이라며 "마지막 회향까지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입재 법문에서 혜국 스님은 예수재의 의미를 강조하며 "예수재는 죄를 없애는 의식이 아니라 죄를 수행의 마음으로 바꾸는 공덕의 길"이라며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감정을 일으키는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법문이 끝난 뒤 불자들은 위패를 모신 법당에서 영가천도 기도와 시식에 동참하며 선망 부모와 유주무주 고혼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번 백중지장기도 및 예수재 선지식초청법회는 입재일부터 시작해 9월 9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봉행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연관 스님, 마음으로 남은 스승"

관음사, 15일 3주기 추모재
마지막 저서 봉정식도 열려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 스님)는 6월 15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연관 스님의 3주기를 기리는 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연관 스님의 마지막 작업이었던 〈마음의 노래(註心賦)〉의 출간 봉정식이 함께 열렸다.

추모재에는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과 전 통도사 부주지 재원 스님을 비롯해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과 삶을 되새겼다.

법등 스님은 "연관 스님은 늘 고요한 겸손으로 존재하셨다"며 "평생 티 없이 맑은 수행자셨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글과 번역을 통해 진리를 나누고자 했다"고 추모했다.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연관 스님이 말년에 관음사에서 원적에 들게 된 인연을 설명하며 "백승완 관음사 신도회장의 가족이 50년 가까이 스님을 모셨고, 백 회장이 마지막 간병을 하며 스님의 곁을 지켰다"고 전했다.

이원규 시인은 연관 스님을 추모하는 헌시를 낭독하며, 스님이 들려준 야생화와 나무 이야기 속에 담긴 깊은 울림을 기렸다.

연관 스님은 말기암 투병 중에도 봉암사에서 끝까지 번역작업을 놓지 않았으며, 2022년 6월 15일 관음사에서 세수 74세, 법랍 53세로 원적에 들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교직원불자聯, 창립 28주년 법회

6월 14일 홍법사서 봉행



부산불교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손은주)는 6월 14일 홍법사 대적광전에서 '2025년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창립2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손은주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장, 김경희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 배한욱 前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장, 백종헌 금정구국회의원,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 등 각 지회 회장 및 각 학교 교장, 교감, 회원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손은주 회장은 "지금 우리는 학교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을 심고 있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